



독일·캐나다서 문화·기술외교 나선다

전북자치도, 베를린·몬트리올 잇따라 방문
전통예술·과학기술 통한 국제 네트워크 확장

전북특별자치도가 전통문화 세계화와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독일과 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한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계자, 전북도립국악원 예술단, 도내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25일부터 31일까지 독일 베를린과 캐나다 몬트리올을 잇따라 방문해 문화·기술외교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27일에는 전북도립국악원이 독일 베를린의 슈타츠오페라 국립오페라극장에서 창작 무용극 '고섬섬'을 공연한다. 이 공연은 국내 예술단체로는 처음으로 유럽 최고 권위의 오페라극장 무대에 오르는 사례로, 전북 고유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전망이다.

'고섬섬'은 부안 위도의 국가무형문화재인 '피뱃놀이'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지난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도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연은 부안군과 공동 주최하고, 아홉 프라이어 재단과 협업하며, 주독일 한국대사관이 후원한다.

공연 당일에는 독일 문화계 인사, 파독 간호사, 재독 교민 등이 참석한 리셉션도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전 주한 독일대사 한스 올리히 자이트 씨를 전북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베를린은 손기정 선수가 1936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도시로, 이번 공연은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는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 일행은 28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2025 한·캐나다 과학기술대회(CKC)'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AKCSE)와 과학기술 분야 교류 협약(MOU)을 체결하고, 수소에너지, 인공지능(AI), 이차전지, 항공우주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내 주요 R&D 기관장들이 직접 참여해 기술이전과 협업을 위한 공동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현지에서 MILA(몬트리올 기계학습연구소), CRIAQ(항공우주연구센터)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도 기술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29일 열리는 CKC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북의 미래 산업 전략과 국제협력 구상,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한 스마트올림픽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100년 전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이 대한민국 스포츠사에 남긴 감동처럼, 전북은 문화와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미래형 올림픽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울리고자 한다"며 "이번 해외 방문이 전북의 비전과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독일·캐나다 순방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세계적 위상강화는 물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화이팅"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전사 발대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발대식 현장에서 소리전사와 축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12면, 사진=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제공〉

도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10억원 긴급지원 | 도, 시군 피해 규모 고려해 배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전 시군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도는 각 시·군의 피해 규모와 복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배분할 예정이며, 해당 예산은 △도로 사면 낙석 우려지역 △토사 유실 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 △중장

비·인력 등 투입비용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추가 강우에 대비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7월 23일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는 △농작물 침수 104.1ha △주택 침수 15동 △공공시설 피해 14건 등 총 45건이다. 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7월 30일까지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확인된 피

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도와 시군이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평균 강수량은 214.4mm에 달했으며, 남원 뱀

사골 465.5mm, 순창군 456.9mm 등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집중되면서 8개 시군에서 126세대 199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일시 대피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토·일요일 신문 쉽다.

새만금산단 ESS·발전시설 설치 가능

새만금청,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24일 새만금 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이번 변경 내용은 새만금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입주기업들의 토지준공을 위해 확정측량 면적을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6공구) 통합관리센터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공급시설의 설치가 허용됐다.

또한, 2공구 내 국가종합실증단지 내 실증연구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

/이만호 기자

